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The Military Coup and Future of Democracy in Myanmar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Session II. Challenges of Myanmar's Democratic  
Transition and Possible Way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serve Democracy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민주주의 지원 가능성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민주주의 지원 가능성

김현준  
고려대학교 교수



### 서론

#### 1. 주요 내용

- 한국과 미얀마 관계에서 본 미얀마 민주주의 지원 방안, 가능성과 한계
-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이어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 2021 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계적 지형

##### (1) 비우호적 환경

- 전 세계적 인권, 법치,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 포퓰리즘의 등장
- 미중 갈등 속 미국 트럼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략적 이용과 중국의 상대주의 전략
-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외교의 전통적 위상(국가이익, 자국중심주의)

##### (2) 우호적 환경

-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가치 외교(value diplomacy) 천명
- 인권, 책임/이행기 정의(accountability/transitional justice),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등 국제인권, 인도주의 규범, 국제형사법의 발전

### 본론

#### 1. 미얀마 상황(2021.3.30.)과 주요국 외교

##### (1) 미얀마 상황

- 현재 인명 피해: 510명(AAPP, 2021.3.29.), 특히 3월 27일 하루 102명 사망(AAPP)
- 비무장 시위대, 일반 시민, 아동,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총격
- 시위대를 향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안정과 안보를 해치는 테러리즘” 발언(2021.3.27.)
- 군부의 “머리와 등에 총격을 받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협박(MRTV, 2021.3.26.)
-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2021.3.10.), 미국 등 12개국 합참의장 비난 성명(2021.3.27.)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은 군부 초청 행사에 참여(2021.3.28.)

##### (2) 주요국 외교

- 미국: 인권과 민주주의 비난, 개인 제재, 계좌 인출 차단, USAID ODA 시민사회 전환
- 중국: 일대일로 위한 이해관계와 시진핑의 2020년 1월 방문, 내정간섭 불가(“쌍방이 차이 해소”), 안보리 결의안 방해, 군부와의 미묘한 관계

- 일본: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 군부와의 밀접한 연계, 미국과의 관계
- ASEAN: 내정불간섭 원칙, 난민 유출 우려, 대응에 있어 분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2. 2021년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외교

- 네 차례 외교부 성명 발표와 외교부 차관 면담(2021.2.16.)
  1. 2021.2.2. “깊은 우려”
  2. 2021.2.20. “깊은 우려”, “폭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
  3. 2021.2.28. “매우 심각한 우려”,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4. 2021.3.28.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
- 문재인 대통령 트윗(2021.3.6.): “폭력 즉각 중단”, “군과 경찰의 폭력 진압 규탄”, “구금자들의 즉각 석방 강력히 촉구”
- 정부 실질적 대응 1차 조치 주요 내용(2021.3.12.)
  1.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2.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엄격 심사
  3.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단, 민생과 직결된 사업,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
  4. 체류 중인 미얀마인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계획

## 3. 한국의 시민사회

- 광주의 지원과 연대, 전국 시민단체, 개인 SNS, 지방의회, 정당, 종교기관, 대학, 인권 관련 재단 등의 적극적 지원과 그 의의
- 미얀마 군부 소유(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MEHL], Myanmar Economic Cooperation[MEC])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항의 집회

## 4. 한국 외교의 가능성

- 양자 외교
  - 한국 인권외교의 핵심인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보호와 민주주의 증진에 맞춰 진행
  - 이민/난민/망명에 대한 실질적 정책 시행(2019년 주한 미얀마인: 29,294명)
  - 개발 협력 사업 조정 및 모니터링 강화(2019년 통계: 유상 3,906만 달러, 무상 3,558만 달러)
  - 국제적 합의가 있는 이슈에 집중: 아동/청소년/여성, 기자/언론의 자유, 의료인력 공격 등
- 다자 외교
  - 유엔 인권이사회(HRC), 6월 영국 G7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 미국과 EU가 주도할 경제 제재 참여
  - 디지털 권위주의 관련 다자협력 강화: 감시 장비
- 민간 외교
  - 국제 기준에 맞는 민간 기업 운영: 2019년 유엔(UN FFM in Myanmar)에 공개된 보고서에 군부와 거래 기업 중 한국 기업 관련 조치

- 국제 규범과 기준 적용(e.g.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특히 포스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11.75%, 2020 년 기준) 기금 투자된 민간 기업이나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이었던 기업

## 5. 외교의 한계와 우려

- 사태의 장기화
  - 중국, 태국과의 지속적 교역
  - 군부의 자생력과 제재에 대한 내성에 따른 제재 비효율성과 상황의 장기화
  - 현금(마약, 목재, 보석 등)
- 내전 발발과 난민 유출
  - 시민사회의 무력 대응 증가, 젊은 세대의 굳은 저항 의지와 과격화(radicalization)
  - 기존 내전과 연결 가능성: 소수민족 무장세력과의 연대 가능성(CRPH[연방의회 대표위원회], 2021.3.17. 성명)
  - 국경 지역에 대한 공습 재개와 국경을 넘는 난민 발생
  - 내전 발발시 국가비상사태 강화와 저항 세력 및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강압 조치 및 심각한 인권침해 발발 우려
  - 시리아 내전의 경우와 같이 내전 발발 시 국제적 지원 세력이 약화되고, 민주화 자체보다는 국경을 넘는 난민 지원에 집중될 가능성
  - 내전의 장기화 우려와 그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영속화
- 불처벌(impunity)과 처벌(accountability)의 정치학
  - 군부의 처벌에 대한 국제여론의 증가(현재 감비아가 제기한 로HINGYA 집단살해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건, 군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보편적 관할권 기소 요구 증가)
  - 오랜 관행으로서의 군부 인권탄압(로HINGYA)과 누적된 국제범죄 다수
  - 사태 진행 과정에 나오는 처벌 논의가 사태를 장기화할 가능성 존재

## 결론

- 미얀마가 한국 인권과 민주주의 외교에 주는 함의
- 성찰
  - 2016년 이후 진행된 로HINGYA족의 인권침해(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한 침묵과 경제적 이해 중심의 외교
  - 북한,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통된 기준 설정 문제(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 북한과 미얀마 관련 VOA 인터뷰)
  - 미얀마 외교에 있어 소수민족 문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외교 원칙과 전략 수립 필요성(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외교 전략 수립)

- 가능성
  - 미얀마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학계, 종교계의 관심과 연대, 의식 수준 상승(정체성의 변화)
  - 한국의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외교의 범위와 내용, 깊이의 변화
  -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교역 및 국가의 외교 지향도 변화 필요
  - 미얀마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지향의 보편적 외교 원칙 수립과 운영 필요

■ **저자:** 김헌준\_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부교수 및 선임연구원, 미국 세인트올라프대학교 (St. Olaf College) 방문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The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Seeking in South Korea*,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sia Pacific*, “The Prospect of Human Rights in US-China Relations: A Constructive Understanding,”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mailto:jhjun@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 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 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 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 호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mailto:eai@eai.or.kr) Website [www.eai.or.kr](http://www.eai.or.kr)